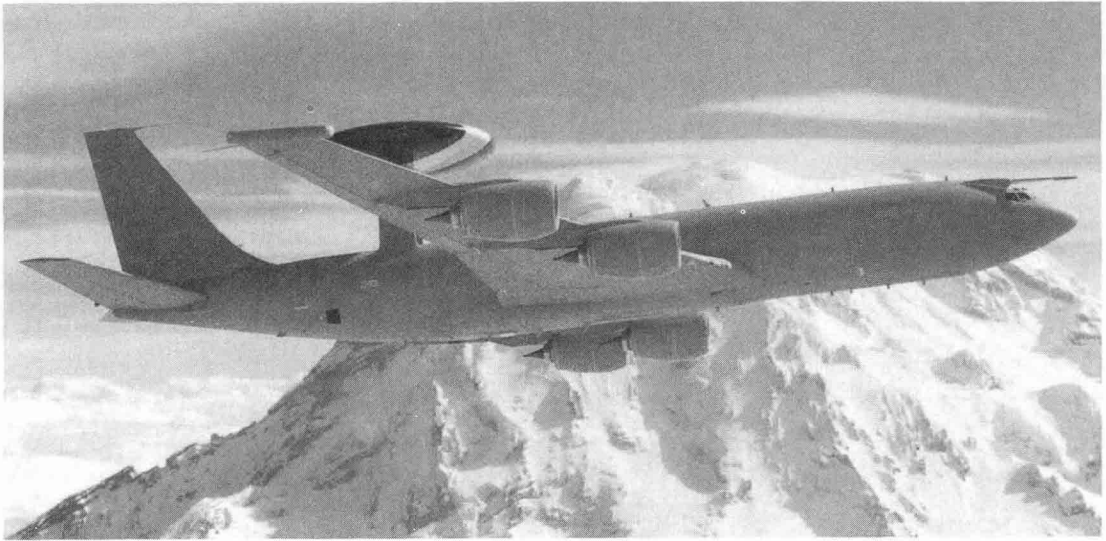


F117A 스텔스기 VS E-3조기경보통제기

기체에 커다란 레이다를 탑재하여 「무엇이든지 포착할 수 있다」는 정찰기가 보잉 E-3 조기경보통제기(AWACS)이다. 이것에 대해, 레이다파를 흡수하는 특수한 소재로 된 「보이지 않는 전투기」가 F 117 A 스텔스기이다. 이것은 모두 美軍의 최신에 하이테크 항공기이다

여기에 단순한 의문이 생기는데 AWACS로서 스텔스기는 발견가능한가? AWACS와 스텔스기가 「공중전」을 행하면 어느 쪽이 승리하게 될 것인가?



지난 3월 중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위해 비행한 Stealth기가 서울근교의 공군기지에서 공개되었다.

전장 20m, 폭 13m로 기체는 의외로 작다. Cockpit라든가 전파흡수제로 된 기체는 기밀이 가득한 것으로 보여, 반경 20m 이내는 무장병이 경계하여 접근을 금지하고 있었다.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레이다망을 뚫고, 전략거점 폭격을 수행하여 유명하게 됐으나, 그 「공개」에 미군은 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AWACS도 3월 하순,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서 기내가 공개되었다.

미군의 발표에 따르면 AWACS는, 상공에서 최대반경 약 300마일(약 480km)의 범위에 있는 항공기와 함선의 움직임, 교신내용 등 동시에 600개의 목표탐지가 가능하다. 더욱이 탐지한 목표를 컴퓨터로 식별·해석하여 아군에게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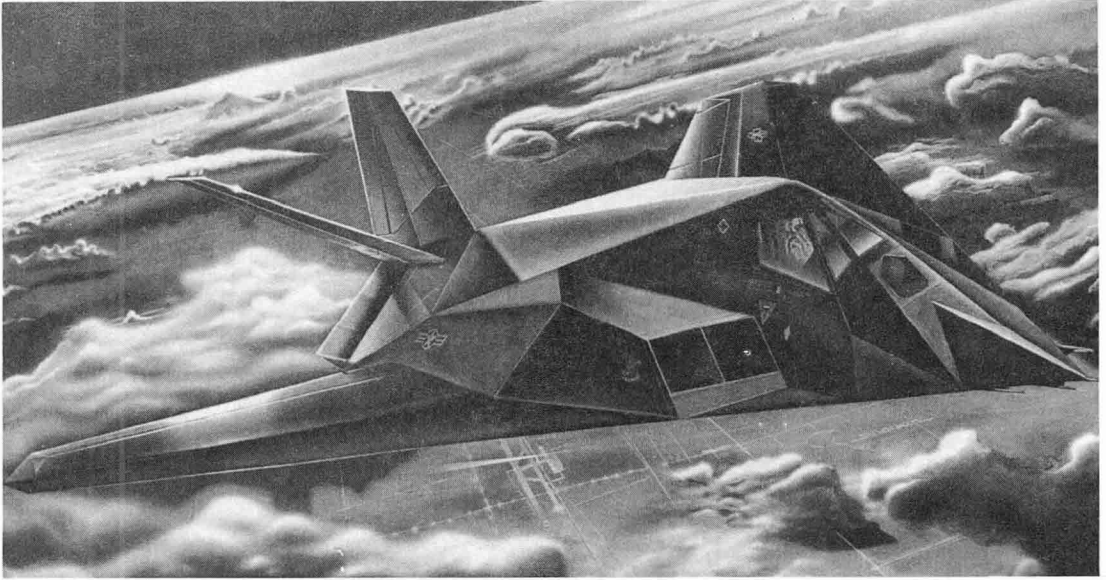
격목표의 지시라든가 적기를 피해서 목표에 접근하는 유도 등의 지령을 내린다.

또한 파나마 주변에서의 마약 밀수선의 수색, 미국 플로리다 해변에서의 허리케인 등 기상 관측에도 사용되고 있다.

「AWACS로 Stealth기는 발견 가능한 것인가」. 미군 공중 경계관제 부대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면, 부사령관은 「다분히 무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사령관은 「한다면 안될 것도 없지만」이라고 미묘하게 엇갈리는 답변을 한다. 그 이상은 「군사비밀」이어서 그다지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군사전문가에 의하면 Stealth기는, 고도라든가 거리 등의 조건에 따라 AWACS의 레이다에는 확실하게 비추어지지 않으나, 어떤 종류의 그림자가 비칠 가능성은 높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측은 충분히 연구하여, 어떤



그림자가 Stealth기의 그림자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것은 극비일 것이다」라고 전문가는 보고 있다.

조기탐지에 절대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AWACS는, 일체 무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Stealth기가 접근, 공격하면 AWACS는 반격수단이 없어 격추되고 만다.

한편 Stealth기는 타전투기의 지원없이 단독 또는 소수로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만일

AWACS에 사전 발견된다면, 지령을 받는 전투기가 반격하여 역시 격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같이 Stealth기와 AWACS는 「矛와 盾(창과 방패)」의 관계에 있다. 미국은 정책적으로 AWACS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각국에 수출하고 있으나, Stealth는 문외불출로 「外觀이외에는 비공개」를 지키고 있다.

「矛와 盾」의 어느 쪽에 승리의 손이 올라가는 것은 글자대로 모순과 같다.

세계의GNP 対北 군사비 지출 (1989년 추정)

군사비/GNP (%)	1인당 GNP (1989년 美貨)											
	\$ 500~999			\$ 1,000~2,999			\$ 3,000~9,999		\$ 10,000이상			
10% 이상	남 양 레	예 골 바	멘 라 논	이 북 시	라 리	크 한 아	사 리 旧	우 디 비 소	아 라 비 아 련	카 이	타 스 라	르 엘
5~9.99%	북 모	예 로	멘 코	몽 이	집	고 트	그 대	리 스 만	쿠 아 싱 미	웨 랍 가	이 메 포	트 리 르 국
2~4.99%	중 필	리	국 핀	南 터 이 태	阿 어	연 방 키 란 국	한 쿠 스	페	국 바 인	영 프 네 이 스 캐	랑 덜 탈 위 나	국 스 드 아 스 다

* <I. D. R> 93/2월호